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Leadership is not about the next election, it's about the next generation. (Simon Sinek)

지도력은 다음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관한 것이다. (사이먼 사이넥)

오늘(2016년 3월 22일) 아침 출근길에 자기의 이름이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인사하는 분을 보았다. 그분은 이미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고 현직 변호사다. 지하철 구내 개찰구 앞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연신 허리를 굽실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잠시 후, 자신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자 허리를 펴고 뒤로 젖히며 허리 운동을 하였다. 표를 구걸하는 인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했다.

인사라 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마주 보고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철이 도래할 때마다 길거리에서 유권자를 향하여 인사를 하는 분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로 예의를 다해 진심으로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오직 선거를 위하여 표를 구걸하는 정상배의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나는 내가 느끼기에 정성을 다해 예의를 갖추어 진심으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매일 아침 아파트 정문 횡단보도 앞에서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교통정리를 하는 분을 보았다. 출근길에 몇 달 동안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니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하루는 출근길에 목적지보다 한 정거장 앞선 정거장에서 버스에서 내렸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출근길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서였다.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 그분이 서 계신 쪽으로 가자 그분은 어김없이 나에게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였다. 나도 인사를 하며 잠시 서 있었다. 지나는 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이며, 무엇 때문에 매일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고 물었다. (사실, 나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에 대해 별 상상을 다 했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정상배인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참회의 시간을 갖는 중인가? 등등)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다. 뜻밖에도 그분은 그 동네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었다. 낮에는 많은 주민을 만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출근길에 인사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다른 길거리 선교단처럼 요란스럽지도, 어깨띠를 두르지도 않았다. 단지, 얼굴에 가득담은 미소와 진심으로 주민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있었다.

나처럼 호기심이 발동하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말을 붙여오는 사

람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상대방이 원할 때 작은 가방 속에 준비해서 다니는 선교 물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매일 그곳을 지나며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면,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나!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니 지방 부흥회나 기도원에 갈 때에는 나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말이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많은 메뚜기가 날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는 표로 보일 것이고, 그 표를 향하여 기계적으로 허리를 굽실대고 있을 것이 뻔하다. 또한, 많은 메뚜기는 제 분수를 모르고 이리저리 날뛰다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조용하면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이 목사님(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소재 하나교회 담임목사)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자질을 지닌 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숫자가 아닌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리더의 힘)’라는 책의 저자인 사이먼 사이넥(Simon Sinek)이 ‘지도력은 다음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관한 것이다.’라고 했듯이 눈앞의 표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진심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는 것ियो, 마땅히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